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8, pp. 341-349, 2018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8.16.8.341

한국인의 스포츠 감정에 내재된 민족주의와 세계화 성향 : 2016년 브라질 하계 올림픽을 중심으로

이종길[1], 이공주[2], 양재식[3*]
[1]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2]충남대학교 전파정보통신공학과 교수, [3]충남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원

Nationalism and Globalization Tendency in Sport Emotion of Korean : Focusing on 2016 Brazil Olympic Games

Jong-Kil Lee[1], Kong-Joo Lee[2], Jae-Sik Yang[3*]
[1]Professor, Dept.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
[2]Professor, Dept. of Radio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
[3]Researcher, Institution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인의 스포츠 감정에 내재된 민족주의적 속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그 세계화 성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SNS 상의 감정 표현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스포츠 감정과 그에 내재된 민족주의 속성을 규명하고자 2016 브라질 올림픽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해당 기사의 댓글을 내용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주의적 속성 단어는 해당 경기 상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였다. 둘째, 한국인의 스포츠 감정은 역사적 배경을 자극하는 상황과 만날 때, 강력한 저항 민족주의의 속성을 나타내었다. 셋째, 한국인의 스포츠 감정에 내재된 민족주의는 대체로 폐쇄적 민족주의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집단 감정으로서의 스포츠 감정에 대한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감정의 실체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주제어 : 스포츠 감정, 민족주의, 세계화, SNS, 댓글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tendency of nationalism and globalization of Korean by analyzing their emotions in sport phase. The SNS comments of newspaper articles on 2016 Brazil Olympics were selected and used to analyze types of nationalism with its emotional texts.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s; First, the words which showed nationalistic tendency represented each sport phase. Second, Korean showed strong resistant nationalism when their historical background was stimulated by the situation. Third, the most dominant type of Korean's nationalism in sport emotion was the closed. This study could be valued with the empirical approach on the sport emotion and nationalism tendency of Korean.

Key Words : Sport emotion, Nationalism, Globalization, SNS, Comment

1. 서론

스포츠는 다분히 강한 민족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스포츠가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각 국가 혹은 민족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동질감을 통해 그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 강한 결속력을 갖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1,2]. 나아가 스포츠의 민족주의적 속성이 자국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구성원 간의 단합을 촉구하여 자국의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A2A03926821)
*Corresponding Author : Jae-Sik Yang(4774495@hanmail.net)
Received June 29, 2018 Revised July 31,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Published August 28, 2018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맞아떨어져 국가적 차원에서 지극히 장려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3].

민족주의와 스포츠의 밀접한 관계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유럽연합이 축구를 통해 새로운 탈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추구하였으나 이에 실패하고 오히려 각 민족의 개별적 민족주의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듯[4], 스포츠는 각 민족과 국가들의 민족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5]. 이렇듯 스포츠는 전통적으로 민족감정을 환기시키고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문화형식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왔다[3].

스포츠와 민족주의의 불가분한 관계로 인해 민족주의가 스포츠의 현장으로 투영 될 경우, 사회적 감정의 분출구 역할을 하는 스포츠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감정을 형성하게 된다. 일례로 한・일 양국 간의 스포츠 경기는 여타 경기에 비하여 한국 특유의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는 의식과 함께 보다 강렬하고 공격적인 감정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적대적인 민족관계가 스포츠를 매개로 적대적 감정의 형태를 드러내는 것이다[6,7].

또한 박찬호와 박세리, 박지성 등의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해외에서 뛰는 한국 민족이라는 관념 하에 호들갑에 가까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며 그들의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게 되기도 한다[8]. 한국인이라는 민족주의적 동질감이 하나의 매개가 되어 경기결과와 그에 따른 민족적 우월성에 대한 집착으로[6] 보다 강렬한 스포츠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의 스포츠 감정으로 표출되는 스포츠 민족주의는 여타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들만큼 열렬하다. 그리고 그러한 독특하고 열광적인 민족주의적 감정의 표출은 한국 민족주의의 연원과 관계가 있다[9]. 구한말 외세의 침략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에 의한 식민 콤플렉스, 광복 후, 이념의 갈등으로 발생한 분단 콤플렉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논리와 선진국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세계화 콤플렉스가 바로 그것이다[10].

이와 같은 역사적 연원은 한국의 민족주의의 특성을 저항 민족주의(식민 콤플렉스), 폐쇄적 민족주의(분단 콤플렉스), 열린 민족주의(세계화 콤플렉스)의 형태로 구축하였다. 저항 민족주의는 외세의 침탈에 맞선 독립과 대외적인 자주권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민족의 외부에 적대적・대항적 대상을 두어 그를 통해 내부적 동질성을 확인한다. 폐쇄적 민족주의는 대외적인 폐쇄성과 대내적인 억압성을 기초로 하는 배타적 성격의 민족주의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성격을 가진다. 열린 민족주의는 세계화를 따라가기 위해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다른 민족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 받으려는 것으로서, 선진국을 모방하고 그들과 동등해짐으로서 민족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성격을 가진다[10,11].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의 유형은 그 역사적 흐름과 연원에 따라 세계화와 다음 Fig. 1과 같은 상관관계를 지닌다[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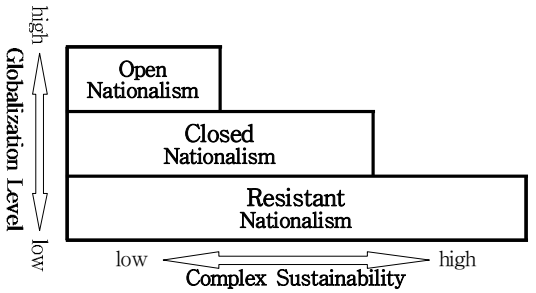

Fig. 1. Korean nationalism type & globalization tendency

모형에 따르면 한국 민족주의의 속성이 열린 민족주의에 가까울수록 한국의 세계화 가능성은 커지며 콤플렉스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저항 민족주의에 가까운 형태를 보일수록 콤플렉스의 지속성이 강하고 한국의 민족주의는 세계화의 성향을 잃어갈 것이다.

역사적 흐름에 따라 형성되어온 이와 같은 한국 민족주의의 속성은 최근의 세계화 흐름과 발맞춰 긍정적인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세계화를 향한 밑거름이 될 것을 요청받고 있다[10]. 즉, 열린 민족주의를 통해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간, 민족 간의 동등한 교류와 협력의 장을 열어 '글로벌 거버넌스'를 지향하자는 것이다[11]. 그리고 스포츠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서 예외는 아니다. 스포츠를 매개로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세계화라는 최근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5].

따라서 스포츠 현상에서 표출되는 스포츠 감정을 토대로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속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인의 세계화 성향을 짚어보는 것은 한국인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어 학문적인 근거와 더불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의 민족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스포츠 감정의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스포츠 감정에 내재된 민족주의적 속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인의 세계화 성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 브라질 하계 올림픽 관련 기사의 댓글을 중심으로 첫째, 민족주의적 속성 단어의 출현 빈도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둘째, 각 기사별 댓글의 민족주의 속성을 분석하였고 셋째, 기사 유형별 민족주의 속성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스포츠 감정에 내재된 민족주의적 속성의 특징과 세계화 성향의 양태를 논의하였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SNS 상의 스포츠 감정 표현 텍스트를 기반으로 그에 내재되어있는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속성을 규명하고자 국내의 대표적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Daum과 Naver를 주요 SNS로 선정하고 해당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2016년 브라질 하계 올림픽 관련기사와 그 댓글을 스포츠 감정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진의 회의를 거쳐 댓글을 통한 참여도와 관심도가 높은 축구, 배구 등 2 종목의 관련 기사를 승리・응원 혹은 칭찬 등의 긍정적 논조를 띈 기사와 패배・비판 혹은 질책 등의 부정적 논조를 띈 기사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기사 중 댓글 수 상위 5위까지의 기사를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기사들로 지목된 한국 대표팀과 관련한 오심 등의 논란이 있는 기사를 추가적으로 검색하여 레슬링과 유도의 오심 논란 관련 기사 중 댓글이 가장 많은 기사 각 1편도 최종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조사대상 기사의 유형과 그 댓글 수는 위의 Table 1과 같다.

2.2 자료 수집・분석

한국인의 스포츠 감정에 내재된 민족주의적 속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신문기사의 댓글을 스포츠 감정 표현 텍스트의 원자료로 설정하고 Python을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수집하였다.

Table 1. Subjective articles

Game	Tone	Article	No. of Reply
Soccer	Positive	1. After slugfest, Korea draw with German on 3-3, maintain the C group leader	6,803
		2. Power exploded, Korea defeat Fiji by 8-0, Ryu scored hat trick	3,095
		3. Kwon scored the winning goal, Korea defeat Mexico, go onto the quarterfinals as 1st	1,436
		4. Lose but nice play, the growth of dark generation	1,350
		5. Not Superior but succeed to defend	1,260
	Negative	1. Korea got defeated from Honduras by 0-1, fail to go semifinal	22,498
		2. Overstride but fail to goal, so got defeated	3,560
		3. Hoisted with our own petard, can't blame no one	2,374
		4. 'For draw' is dangerous, need 'for win' against Mexico	1,041
		5. Regretful tie goal…sad draw with Germany	1,034
Volleyball	Positive	1. 30 scores of Kim, Korean women got comeback win against Japan by 3-1	3,013
		2. Park, only she need is encouragement	1,178
		3. Japanese commentator said "the defeat cause by Yang, rather than Kim"	788
		4. Two Kim's 36 scores leaded Korea second straight victory vs Argentina	750
		5. Losing by Korea, Japan sighed thanks to the mistake	609
	Negative	1. Kim was not the God, receive problem screwed up medal	12,455
		2. Women volleyball got defeated by Russia by 1-3	2,595
		3. Failed to go on Semifinal, only Kim can't made it	2,237
		4. Only Kim can't make it, Korea run out of every strategies	1,168
		5. What should Korea lean from defeat by Brazil for quarterfinal?	807
Wrestling	Judgment Problem	1. Under the judgment problem, Kim failed to go onto quarterfinals	2,822
Judo	Judgment Problem	1. 'Hidden weapon' Lee, lose in 16 match round	1,060

Table 2. The standard of measuring nationalism

Type of Nationalism	Standard		Point
	Style	Example	
Resistant	mentioning hostile opponent derisive/critic to opponent	German has just all the luck	1
	hostile opponent + aggressive expression	Want to kick the referee, to restrain him from judging any more	2
	hostile opponent + aggressive expression + strong emotion	Woops..what a stupid Japanese team, the head coach does everything only on mouth, what are you doing, haha	3
Closed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 recognition on problem	Korean specific malady, always give scores to opponent in the end	1
	identification + recognition on problem + emotional expression	so weak metal Koreans have, only small stress make us stupid	2
	identification + recognition on problem + strong emotional expression comparing to the other nation + strong emotion with disparagement	for god's sake of draw, national team have Nazi spy, he gives every chance to them	3
Open	recognition on world level giving equity to opponent	a bit sorry but enough draw against Germany, let's try more against Mexico and make the way to quarterfinals	1
	recognition on world level + positive emotion from same level recognition	what a fu** nice Son today, he is the man against Germany	2
	recognition on world level + strong emotion from same level recognition + expression toward development	Kim drives me fu** crazy, Kim is not Messi & Ronaldo in volleyball, but Messi & Ronaldo are Kim of soccer	3

Python을 활용하여 수집된 전체 댓글로부터 스포츠 감정과 연관된 단어를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선별하고 그 출현 빈도에 따라 각 기사별 상위 5개 단어를 민족주의 속성 단어로서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각 기사의 댓글 중 조회 수 상위 300개의 댓글을 선별한 뒤, 연구자 3인과 한국어와 심리학 전문가 각 1인의 총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어휘와 문맥을 바탕으로[12] 각 댓글의 스포츠 감정에 나타나는 민족주의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강도와 중첩 정도에 따라 1~3점의 민족주의 유형별 점수를 부여하였다. 내용분석에 활용된 민족주의 점수부여 기준은 위 Table 2 와 같다.

민족주의 유형 점수가 부여된 댓글은 조사대상 기사의 유형에 따라 유목화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각화하고 최종 논의에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민족주의 속성 단어 출현 빈도

민족주의적 속성을 지닌 단어들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축구 관련 긍정적 논조의 1번 기사(S.P.1.)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상대팀인 독일(2,686회)이었으며, 한국(1,028회), 너무(1,356회), 손흥민(836회), 판정(346회) 등의 순이었다. 축구 관련 부정적 논조의 1번 기사(S.N.1.)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손흥민(1,681회), 온두라스(1,533회), 침대(1,355회), 우리(868회), 우리나라(598회) 등의 순이었다.

배구 관련 긍정적 논조의 1번 기사(V.P.1.)에서는 일본(441회)이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진짜(329회), 너무(309회), 우리(212회), 우리(212회), 한국(184회) 등의 순이었다. 배구 관련 부정적 논조의 1번 기사(V.N.1.)에서는 선수(190회)가 가장 많이 보였으며, 박정아(149회), 김연경(147회), 감독(85회), 리시브(74회) 등의 순이었다.

판정논란과 관련된 레슬링 기사(W.J.1.)와 유도 기사(J.J.1.)에서는 각각 심판이 504회와 223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그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전체의 댓글 문장을 통해 민족주의적 스포츠 감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해당 경기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단어였다[13]. S.P.1.의 최다 출현 단어인 독일은 해당 경기의 상대국이었으며, 판정이 다섯 번째로 많이 등장한 이유는 심판의 판정과 관련된 불만이 민족주의적 감정 속성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V.N.1.의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인 선수와 두 번째 단어인 박정아는 해당 선수의 경기력이 한국의 경기력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Table 3. Appearance frequency of nationalistic words

Type	1st Fre.	2nd Fre.	3rd Fre.	4th Fre.	5th Fre.
S.P.1.	Germany 2,686	Korea 1,028	Too 1,356	Son, Heungmin 836	Judge 346
S.P.2.	Fiji 809	Ryu, Seungwoo 554	Korea 215	Too 101	Our nation 101
S.P.3.	Bed 107	We 93	Korea 87	mess 81	Middle east 52
S.P.4.	Player 214	Head coach 174	Honduras 98	We 96	Korea 84
S.P.5.	Bed 269	Mexico 234	We 143	Middle east 113	Our nation 79
S.N.1.	Son, Heungmin 1,681	Honduras 1,533	Bed 1,335	We 868	Our nation 598
S.N.2.	Player 593	Game 552	Son, Heungmin 496	Military 454	Honduras 408
S.N.3.	Player 370	We 337	Honduras 215	Mexico 164	Son, Heungmin 152
S.N.4.	Mexico 390	Germany 296	Son, Heungmin 127	Korea 107	We 106
S.N.5.	Germany 248	Pass 145	Defense 132	We 96	Korea 79
V.P.1.	Japan 441	Really 329	Too 309	We 212	Korea 184
V.P.2.	Head coach 445	Game 230	Receive 198	Encouragement 170	Problem 100
V.P.3.	Yang, Hyojin 217	Player 206	Kim, Yeonkyoung 185	Japan 151	We 84
V.P.4.	Player 211	Park, Jeongah 151	Kim, Yeonkyoung 146	Kim, Heejin 113	Game 90
V.P.5.	Japan 219	Ability 121	Mistake 114	Korea 76	Player 73
V.N.1.	Player 190	Park, Jeongah 149	Kim, Yeonkyoung 147	Head coach 85	Receive 74
V.N.2.	Russia 779	Player 688	Kim, Yeonkyoung 532	Fighting 236	We 217
V.N.3.	Park, Jeongah 1,051	Kim, Yeonkyoung 699	Head coach 498	Receive 263	Attack 187
V.N.4.	Kim, Yeonkyoung 383	Russia 241	Too 179	Attack 136	We 94
V.N.5.	Brazil 276	Receive 213	Park, Jeongah 135	Lee, Jaeyoung 122	Serve 93
W.J.1.	Referee 504	Russia 462	Olympic 392	Judgment 294	Protest 189
J.J.1.	Referee 223	Judo 212	One-sided 173	We 84	Jido 43

ex) S.P.1. means Soccer(Game). Positive(Tone). 1(Article Number) from Table 1.
W.J.1. means Wrestling(Game). Judgement(Tone). 1(Article).

스포츠 감정이 상황에 대한 인지적 기제를 통해 '특정한 상황이 이를 인지한 다수의 유사한 정서 반응을 이끌어내는 점[14,15]을 감안할 때, 스포츠 경기가 다수의 대중이 공유하는 민족주의적 속성의 스포츠 감정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기사별 민족주의 속성 분석

기사별 댓글의 민족주의 속성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축구 관련 긍정적 논조의 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민족주의 속성은 폐쇄적 민족주의로 107점 ~ 43점의 점수 분포를 보였다. 또한, 4번 기사에서는 저항 민족주의가 15점으로 열린 민족주의의 7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점수를 보였다. 축구 관련 부정적 논조의 기사에서도 폐쇄적 민족주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1번 기사에서는 저항 민족주의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배구의 긍정적 논조의 기사에서도 폐쇄적 민족주의가 94점 ~ 47점으로 대부분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5번 기사에서는 저항 민족주의가 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1번 기

Table 4. Characteristics of nationalism

Type	Resistant nationalism	Closed nationalism	Open nationalism
	Point(%)	Point(%)	Point(%)
S.P.1.	15(19.48)	43(55.84)	19(24.66)
S.P.2.	14(12.72)	60(54.55)	36(32.73)
S.P.3.	4(3.36)	100(84.03)	15(12.61)
S.P.4.	15(11.63)	107(82.94)	7(5.43)
S.P.5.	20(14.71)	93(68.38)	23(16.91)
S.N.1.	70(45.16)	83(53.55)	2(1.29)
S.N.2.	0	65(91.55)	6(8.45)
S.N.3.	1(1.39)	68(94.44)	3(4.17)
S.N.4.	10(9.90)	68(67.33)	23(22.77)
S.N.5.	11(10.28)	80(74.77)	16(14.95)
V.P.1.	40(30.07)	68(51.13)	25(18.80)
V.P.2.	0	94(100.0)	0
V.P.3.	26(25.00)	70(67.30)	8(7.69)
V.P.4.	0	47(74.60)	16(25.40)
V.P.5.	49(59.76)	31(37.80)	2(2.44)
V.N.1.	7(10.45)	59(88.6)	1(1.19)
V.N.2.	7(8.54)	74(9.24)	1(1.22)
V.N.3.	0	64(86.49)	10(13.51)
V.N.4.	29(21.17)	85(62.04)	23(16.79)
V.N.5.	39(34.51)	61(53.98)	13(11.50)
W.J.1.	130(63.11)	68(33.01)	8(3.88)
J.J.1.	175(77.43)	43(19.03)	0

사에서도 40점으로 폐쇄적 민족주의의 68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배구의 부정적 논조의 기사에서는 모두 폐쇄적 민족주의가 85점 ~ 5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판정 논란을 주제로 한 레슬링과 유도 관련 기사에서는 저항민족주의가 각각 130점, 175점으로 68점, 43점의 폐쇄적 민족주의보다 두 배 이상 강하게 나타났으며, 열린 민족주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기사의 제목 및 관련 경기상황과 연관지어 살펴보면, 긍정적인 논조나 부정적인 논조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스포츠 감정이 지니는 민족주의 속성은 폐쇄적 민족주의의 형태로 나타났다.

단, 저항 민족주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기사들은 축구의 경우 부정적 논조에 상대국의 경기 태도가 매우 불량했을 때였다. 배구의 경우는 긍정적 논조나 부정적 논조와 관계없이 상대국가가 일본이었을 때, 저항 민족주의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유도와 레슬링의 경우도 심판의 판정이 문제가 된 경우로 저항 민족주의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음을 감안하면, 한국인의 스포츠 감정과 그 속에 드러나는 저항 민족주의는 한국인의 외세에 의한 고통이라는 역사적 연원과 매우 높은 관련이 있음[16]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저항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난 배구의 경우는 상대국이 일본으로서, 한국을 침탈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심판 판정 논란의 경우도 강력한 외세의 침탈에 맞선 한국의 역사적 연원과 같이 외부의 권력에 대한 저항의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스포츠 감정은 외침의 역사적 배경을 자극하는 스포츠 경기 상황 하에서 매우 강력한 저항 민족주의의 형태로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3.3 기사 유형별 민족주의 속성 비교

Fig. 2 ~ Fig. 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스포츠 감정에 내재된 한국인의 주된 민족주의 속성은 폐쇄적 민족주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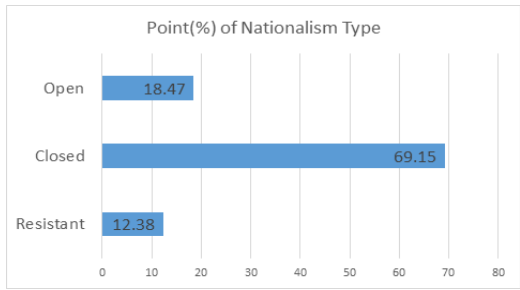

Fig. 2. Types of Nationalism in Soccer-Positive Arti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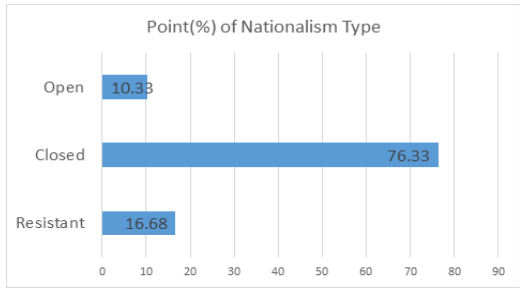

Fig. 3. Types of Nationalism in Soccer-Negative Arti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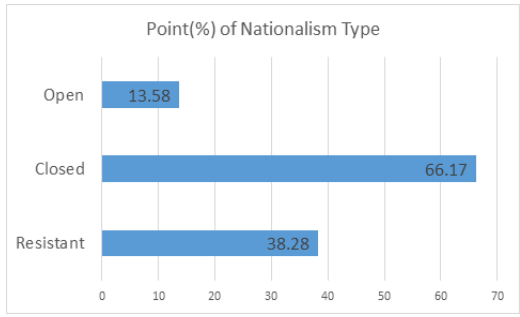

Fig. 4. Types of Nationalism in Volleyball-Positive Arti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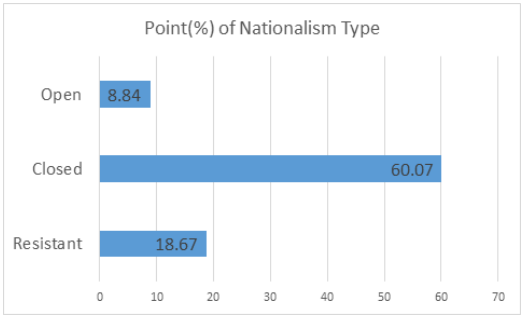

Fig. 5. Types of Nationalism in Volleyball-Negative Arti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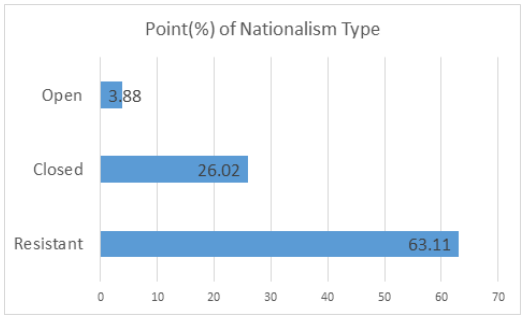

Fig. 6. Types of Nationalism in Wrestling & Judo-Judgement Articles

축구의 긍정적 논조의 기사 유형에서는 폐쇄적 민족주의가 69.15%의 비율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논조의 기사 유형에서도 76.33%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긍적적 논조의 기사 유형에서는 부정적 기사 유형에 비해 열린 민족주의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구 관련 기사의 경우에도 지배적인 민족주의 속성은 폐쇄적 민족주의로 나타났다. 단, 배구의 경우는 긍정적 논조의 기사 유형에서도 축구와 달리 저항 민족주의가 38.28%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만, 긍정 논조의 기사 유형에서는 18.47%의 두 번째로 높은 열린 민족주의를 보인 축구의 경우와 비견할 수 있을 만큼 강한 13.85%의 열린 민족주의를 나타내었다.

레슬링과 유도의 심판 판정 논란 기사 유형의 경우는 저항 민족주의가 63.11%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으며 열린 민족주의는 3.88%로 매우 미약하였다.

따라서 스포츠 감정에 내재된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속성은 그 역사적 연원을 자극하지 않는 경우, 폐쇄적 민족주의의 성향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주의적 스포츠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의 내용에 따라 열린 민족주의나 저항 민족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6,9]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스포츠 감정과 그에 내재된 민족주의적 성향을 바탕으로 분석한 세계화 성향은 긍정적 상황 하에 보이는 열린 민족주의적 속성을 비롯하여, 아직은 조건에 따라 강하게 발현되는 콤플렉스와 저항 민족주의,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폐쇄적 민족주의를 감안할 때, 열린 민족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세계화의 준비 단계[17]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2018년 브라질 하계 올림픽 관련 SNS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스포츠 감정에 내재된 민족주의적 속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민족주의의 유형에 따른 한국인의 세계화 성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SNS를 통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축구와 배구 경기 관련 기사 중, 각각 5개씩의 긍적적 논조와 부정적 논조의 기사 및 그 댓글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강한 민족주의적 표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레슬링과 유도의 심판 판정 논란 기사를 각각 1개씩 선정하였다.

Pytho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사의 댓글을 데이터 마이닝 한 후, 민족주의적 속성의 단어에 대한 출현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회 수 기준 상위 300개의 댓글을 선별한 뒤, 내용 분석을 통해 각각의 댓글에 민족주의 속성별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민족주의적 스포츠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해당 경기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 대한 인지가 공통된 감정을 유발한다는 스포츠 감정 발현의 기제를 감안할 때, 스포츠 경기가 다수의 대중이 공유하는 집단 감정으로서의 민족주의적 스포츠 감정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스포츠 경기 상황이 외세의 침략이라는 한국인의 민족주의의 연원을 자극 할 경우, 매우 강한 저항적 민족주의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인의 스포츠 감정은 역사적 배경의 자극

여부에 따라 매우 강력한 저항 민족주의의 형태로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스포츠 감정에 내재된 한국인의 지배적 민족주의적 속성은 대체로 폐쇄적 민족주의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에 따라 열린 민족주의, 저항민족주의 등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긍정적 상황 하에 보이는 열린 민족주의적 속성과 외침의 콤플렉스에 의해 나타나는 강한 저항 민족주의, 지배적인 폐쇄적 민족주의로 대변되는 한국인의 민족주의 성향은 아직은 세계화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SNS를 토대로 한국인의 스포츠 감정을 조명하고 그 안에 내재한 민족주의적 속성을 분석한 이 연구는 집단 감정으로서의 스포츠 감정에 대한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감정의 실체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스포츠 현상과 민족주의 등의 집단 감정,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 변화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C. T. Son & H. S. Youn. (2011). Investigation into Positive Functions of Sports Nationalism Compatible with Globaliza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0(3),* 37-44.

[2] J. S. Kim & K. M. Lee. (2013). The Out-Pouring Way of Emotion in Korean Sport Field.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26(4),* 79-94.

[3] E. K. Yang. (2012). The Transnational Movement of Athletes and the Formation of Flexible National Identity: Discourse Analysis on 'Ji-Sung Park as National Competitivenes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4),* 80-104.

[4] J. Hargreaves. (2002). *Globalization theory, global sport, and nations and nationalisms. In J. Sugden and A. Tomlinson(Eds.), Power games: A critical sociology of sport.* London: Routedge.

[5] B. C. Kim & S. Y. Kwon. (2007). Sporting Nationalism Reconsidered: Globalization, Sport, and Corporate Nationalism.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18(1),* 75-85.

[6] E. Y. Kim & D. G. Kim. (2010). Why Sports Can't be Free from Nationalism?.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9(6),* 13-24.

[7] Yuki. Iwata. (1998). *A Study of Sports Nationalism : Focused on Korean and Japanese Newspapers.* Master's thesis. Yonsei Uniersity, Seoul.

[8] S. W. Nam & E. H. Koh. (2014). National hero Park Chan Ho vs. cosmopolitan Ryu Hyun-Jin: Globalization, nationalism and the meaning of sport star.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27(4),* 243-259.

[9] H. J. Chung & M. J. Kim. (2011). The Evolution of Sport Nationalism: Birth of Capitalistic Nationalism.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24(4),* 101-115.

[10] Y. M. Kim. (2002). Globalization and Nationalism: A View from Weak State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6(2),* 367-384.

[11] S. K. Kwon. (2006). *Globalization and Korean nationalism;focus on nationalism's development with roll of governance.*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Pusan.

[12] E. Y. Kim & E. J. Ko. (2018). Monitoring Mood Trends of Twitter Users using Multi-modal Analysis method of Texts and Imag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419-431.

[13] B. H. Shin & H. K. Jeon. (2017). Extracting Method of User's Interests by Using SNS Follower's Relationship and Sequential Pattern Evaluation Indices for Keyword.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8),* 71-75.

[14] J. H. Hwang. (2013). A Cognitive Approach to the Emotion in Sport. *Philosophy of Movement, 21(3),* 43-56.

[15] M. H. Boehm. (1933). *Nationalism: Theoretical Aspects.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IX.* Amsterdam: Elsevier.

[16] K. H. Jung. (1997). A study on Korean nationalism. *The Journal for the Study of Humans and Culture, 2(0),* 145-179.

[17] S. J. Kim. (2006). The Evolution of Nationalism in the Contemporary Korea: A Possibility of the Open Nationalism through the World cup game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4(2),* 231-246.

이 종 길(Lee, Jong Kil) [정회원]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학사)
- 1992년 8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교육학박사)
- 1995년 9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와 사회문제
- E-Mail : jklee@cnu.ac.kr

이 공 주(Lee, Kong Joo) [정회원]

- 1994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공학석사)
- 1998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공학박사)
- 2005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자연언어처리, 기계번역, 정보검색, 정보추출
- E-Mail : kjoolee@cnu.ac.kr

양 재 식(Yang, Jae Sik) [정회원]

- 2010년 2월 : 서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이학석사)
- 2014년 8월 :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이학박사)
- 2014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원

- 관심분야 : 스포츠 정책, 전통무예 전승·보급
- E-Mail : 4774495@hanmail.net